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의식조사 연구

정 문 성*

본 조사 연구는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청소년의 평균적 의식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접경 도서지역이라는 특수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평균적 청소년 의식과 이 지역 청소년의 의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특히 정치의식에서 많은 차이가 기대되었으나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사 시기의 상황변수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의식에서는 도시적 청소년 문화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접경 도서지역에도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접경 도서지역이라는 환경 때문에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경제적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약화시키는 모습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식은 평균적 청소년에 비하여 건전하며, 문화의식에 있어서는 평균적 청소년과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 서 론

본 조사 연구는 백령도라는 접경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은 거주 환경상 후방 지역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거주 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심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도 주민들의 심리나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접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섬으로서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전쟁에서 백령 주민들은 북한군에게 갖은 고초를 당하였고, 1·4후

*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되 때에는 북한의 피난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등 전쟁의 후유증을 가장 많이 겪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백령도는 남한 최북단 군사 요충지로서의 특성과 섬지역이라는 특성, 그리고 최근에는 심청전의 인당수가 발견되어 관광지로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군사요충지로서 또는 이념 교육의 장으로서 백령도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이 백령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보고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최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계층으로 등장한 신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가 유행하였다(도종수 등, 1992;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2; 임천순·정태화·이광호, 199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5;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조사들은 우리 나라의 평균적 청소년 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였고, 특정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들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청소년의 의식을 연구할 때 그 청소년의 주변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와 상호작용하여 어떤 영향을 주며 거기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독특한 의식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연구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백령도라는 아주 독특한 지역적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조사해 봄으로써 청소년 심리 연구의 정교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백령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나라 평균적인 청소년들과 어떤 의식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백령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 보고, 다음으로 조사 방법과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실태 분석을 통하여 거기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들을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일반 청소년의 의식과 접경 도서 지역 청소년의 의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전국 7,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하고 상세하게 조사된 문용린 등(1996)의 연구 보고서에서 사용된 질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조사의 결과를 이 보고서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접경 도서지역의 청소년 의식의 독특성이 보다 잘 드러낼 것으로 생각된다.

II. 백령도의 지역 특성

백령도는 동경 124도 53분, 북위 37도 52분 지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의 섬이다. 이 섬은 면적 45.84평방킬로미터, 해안선의 길이 56.8킬로미터로 우리 나라에서 14번째로 큰 섬이다. 인천에서 서북으로 222.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섬은 북한 황해도 장연과는 직선 거리 10킬로미터, 장산곶과는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동쪽 해안선은 작은 만을 이루고 있어서 신라 시대부터 중국과 배로 왕래할 때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다. 백령도는 경관이 아름답고 공해가 없는 곳으로, 새들이 살기 좋은 보금자리여서 백령(白翎)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백령도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에서 이후 통일 신라, 고려 시대에 와서 백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조선시대에는 왜구와 오랑캐들이 자주 노략질을 하였으며 유배지로도 이용되었다. 해방후 황해도 장연군에 속해 있던 백령도는 한국전쟁으로 38선이 그어지자 남한의 웅진군 백령면으로, 그리고 1996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에 속하게 되었다.

백령도는 전체 면적의 66%가 임야, 26%가 농경지이고 기타가 8%이다. 백령도의 인구는 4,265명(96년 7월 현재)으로 남자가 2,081명 여자가 2,184명이다. 이중 40%인 864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전체 가구는 1,452가구로서 농가가 47%, 어가가 9%이고, 나머지 44%는 다른 여러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은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진촌초등학교와 북포초등학교의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학생수는 349명이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백령중학교와 백령종합고교가 있는데 중학생이 177명, 고등학생이 180명 재학하고 있다.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낮고 형편이 좋은 가정은 일찍부터 수도권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 고교를 마친 청소년도 수도권으로 나가 취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백령도는 일찍부터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어 현재 주민의 71.6%가 기독교인이라는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 1840년경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청나라에서 귀국하던 중 백령도에 들렀다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새남터에서 순교하였고, 한국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인 토머스 목사도 평양으로 가기 전에 백령도에 들른 일이 있다. 갑오경장으로 백령도로 유배는 김성진이 189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중화동 장로 교회를 세워 기독교가 일찍부터 번성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속 등 민간 신앙이 빨리 쇠퇴하였다[최윤식·백원배, 1997].

Ⅲ. 조사 방법과 내용

1.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백령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다. 백령도에는 백령중학교와 백령종합고등학교가 유일한 중등학교이다. 표집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를 위해서 1997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백령도를 방문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 각각 80명, 72명 등 모두 152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1 : 표집의 특성

단위 : 백분율(%)

변 인		중 학 생	고등학생
성별	남자	71.3	73.6
	여자	28.8	26.4
성적	상	37.5	34.7
	중	33.8	27.8
	하	28.8	37.5
부의 학력	초졸	10.0	23.3
	중졸	17.1	30.0
	고졸	67.1	33.3
	대졸	5.7	13.3
소득	상(200만 이상)	15.9	27.1
	중(100만~200만)	52.2	48.6
	하(100만 미만)	31.9	24.3
모의 취업	전일제 직장	74.2	51.6
	시간제 직장	16.7	12.9
	전업 주부	9.1	35.5
계		100.0(80명)	100.0(72명)

2.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의 조사 내용은 크게 생태적 변인과 의식조사로 구성되었다. 생태적 변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진 성별, 성적, 교급별, 부의 학력, 소득, 모의 취업 여부 등이다. 성적은 1등에서 10등까지를 ‘상’, 11등에서 20등까지를 ‘중’, 21등 이하를 ‘하’로 분류하였다. 부의 학력은 초졸, 중졸, 고졸, 대졸로 구분하였다. 특히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아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을 대졸로 분류하였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을 ‘하’,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중’, 200만원 이상을 ‘상’으로 구분하였다. 모의 취업 여부는 전일제 직장, 시간제 직장, 전업 주부로 구분하였다.

의식조사는 문용린 등[1996]이 조사한 내용 중에 사회적 의식성향으로 분류된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을 조사 내용으로 하였다. 정치의식으로는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도인 ‘정치적 관심’,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의 강도인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참여의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치 참여의식’,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였다.

경제의식은 노조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으로 ‘노조 활동’, 기업간의 자유경쟁에 대한 의식으로 ‘자유 경쟁’,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를 표현하는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으로 ‘분배 문제’, 개인주의적 소비의식과 감각주의적 소비 의식, 그리고 국산품 애용에 대한 의식으로 ‘소비문제’,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였다.

사회적의식은 법의 공평성에 대한 의식으로 ‘법의식’, 빈부, 남녀, 계층에 따라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는지에 대한 ‘기회 균등의 의식’,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중요한지에 대한 ‘연고주의 의식’, 세대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대 간 의사소통 의식’,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적 미래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였다.

문화의식은 청소년 문화의 성인문화 모방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성인문화 모방의식’, 청소년들의 취향이 서구적인지를 알아 보는 ‘청소년 문화의 서구성 의식’, 전통 문화의 계승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문화적 미래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였다.

IV.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 의식실태 분석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 의식실태 분석의 순서는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의 순으로 하고, 변인별로는 교급별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그외의 변인들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만 표로 제시하였다.

1. 정치의식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문항은 ‘정치적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 ‘정치적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표의 선거권이라도 중요하다”, ‘정치 참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정치가 발전하려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나라는 5년 후쯤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T/F값)
교급 중 고	14.6 10.0	18.3 15.7	39.0 31.4	14.6 30.0	13.4 12.9	
성적 상	17.5	22.8	22.8	22.8	14.0	18.30*
중	11.5	15.4	28.8	32.7	11.5	
하	6.3	10.4	54.2	12.5	16.7	
소득 상(200만 이상)	25.0	20.0	12.5	17.5	25.0	20.16**
중(100만~200만)	10.8	13.5	37.8	27.0	10.8	
하(100만 미만)	3.1	12.5	46.9	25.0	12.5	
계	12.5	17.1	35.5	21.7	13.2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9.6%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4.9%로 나타나,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48.6%, 고교생 50.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평균적 청소년에 비하여 정치적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보면 상, 중, 하가 각각 40.3%, 26.9%, 16.7%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적이 높을수록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평균적 청소년들의 경향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경제적 소득의 측면에서는 상, 중, 하가 각각 45.0%, 24.3%, 1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문용린 등[1996]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3 : “한 표의 선거권이라도 중요하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T/F값)
교급 중	39.5	28.4	23.5	6.2	2.5	
고	32.4	36.6	19.7	8.5	2.8	
소득 상(200만 이상)	29.0	41.9	12.9	12.9	3.2	18.93*
중(100만~200만)	36.5	27.0	29.7	6.8	0.0	
하(100만 미만)	52.5	25.0	15.0	0.0	7.5	
계	36.2	32.2	21.7	7.2	2.6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한 표의 선거권이라도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3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8.4%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8%로 나타나,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75.5%, 고교생 78.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나 정치적 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소득의 측면에서는 상, 하가 각각 70.9%, 77.5%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중간이 다소 낮은 63.5%의 응답을 보였다. 그외

에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 “정치가 발전하려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45.1	34.1	14.6	4.9	1.2	8.37*
고	40.8	32.4	19.7	4.2	2.8	
성적 상	53.4	34.5	10.3	0.0	1.7	
중	51.9	25.0	13.5	7.7	1.9	
하	25.0	35.4	31.3	6.3	2.1	(100.0)
계	43.1	33.1	17.0	4.6	2.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정치가 발전하려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6.2%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6%로 나타나,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80.6%, 고교생 86.3%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나 정치 참여의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보면 상, 중, 하가 각각 87.9%, 76.9%, 60.4%로 성적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용린 등[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외에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의식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 정치적 미래

단위 : 백분율(%)

변 인	크게 후퇴	약간 후퇴	현상 유지	약간 발전	크게 발전	(T/F값)
교급 중	13.4	30.5	20.7	28.0	7.3	9.54*
고	14.3	18.6	22.9	37.1	7.1	
성별 남자	14.7	19.3	22.9	33.9	9.2	(100.0)
여자	12.8	38.3	19.1	29.8	0.0	
계	13.8	25.0	21.7	32.2	7.2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가 39.4%, 비관적 태도가 38.8%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51.2%, 고교생이 49.3%가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하여 평균의 청소년보다 다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43.1%가 낙관적 태도를 보여 여자의 29.8%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낙관적인 경향을 보였다.

2. 경제의식

청소년의 경제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문항은 ‘노조 활동’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해 “노조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유 경쟁’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해 “기업간의 자유경쟁은 보장되어야 한다”, ‘분배 문제’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해 “우리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개인주의적 소비의식’을 알아 보기 위해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 ‘감각주의적 소비의식’을 알아 보기 위해 “나는 실용적인 것보다 모양이 멋진 것을 사는 편이다”, ‘국산품 애용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해 “국산품 애용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해 “우리 나라는 5년 후쯤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 “노조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14.8	24.7	51.9	6.2	2.5	
고	8.7	31.9	43.5	13.0	2.9	
계	12.0	28.0	48.0	9.3	2.7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노조 활동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노조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6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0.0%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2.0%로 나타나,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41.6%, 고교생 40.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중간인 청소년이 노조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 “기업간의 자유경쟁은 보장되어야 한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27.5	30.0	36.3	5.0	1.3	
고	27.5	40.6	29.0	2.9	0.0	
성별 남자	33.3	28.7	31.5	6.5	0.0	12.66*
여자	15.6	48.9	33.3	0.0	2.2	
계	27.5	34.9	32.9	4.0	0.7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기업간의 자유 경쟁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기업간의 자유경쟁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7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2.4%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7%로 나타나,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71.1%, 고교생 82.7%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나 자유 경쟁의 의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33.3%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여자의 15.6%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 “우리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12.2	23.2	56.1	7.3	1.2	11.19*
고	16.2	45.6	32.4	4.4	1.5	
부의 초졸	9.5	52.4	33.3	0.0	4.8	28.22**
학력 중졸	14.7	32.4	44.1	8.8	0.0	
고졸	11.9	35.8	49.3	3.0	0.0	
대졸	41.7	8.3	25.0	25.0	0.0	
계	14.0	33.3	45.3	6.0	1.3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빈부차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8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7.3%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3%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5.4%, 고교생이 6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52.1%, 고교생 78.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각각 다소 낮은 수치이나 고학년일수록 빈부차에 대해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에서 그렇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9 :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16.0	24.7	32.1	22.2	4.9	
고	13.0	27.5	47.8	7.2	4.3	
계	14.7	26.0	39.3	15.3	4.7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개인주의적인 소비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9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0.7%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0.0%로 나타나,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45.5%, 고교생 49.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나 평균적 청소년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평균적 청소년이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 소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접경 도서 지역 청소년에게서는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0 : “나는 실용적인 것보다 모양이 멋있는 것을 사는 편이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14.8	35.8	37.0	8.6	3.7	
고	14.1	23.9	40.8	16.9	4.2	
계	14.5	30.3	38.8	12.5	3.9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감각주의적인 소비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나는 실용적인 것보다 모양이 멋있는 것을 사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10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4.8%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6.4%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34.5%, 고교생 33.5%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11 : “국산품 애용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14.1	21.8	33.3	14.1	16.7	12.74*
고	16.2	11.8	30.9	35.3	5.9	
성적 상	17.5	7.0	19.3	38.6	17.5	26.10**
중	12.2	22.4	32.7	20.4	12.2	
하	15.6	20.0	51.1	8.9	4.4	
계	15.1	17.1	32.2	24.0	11.6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국산품 애용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국산품 애용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11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2.2%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5.6%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35.9%, 고교생이 28.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25.4%, 고교생이 22.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국산품 애용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성적별로는 상위 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중위학생은 중립적 태도를, 하위 학생은 중립적 태도와 그렇다에 많이 응답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국산품 애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여기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12 : 경제적 미래

단위 : 백분율(%)

변 인	크게 후퇴	약간 후퇴	현상 유지	약간 발전	크게 발전	(T/F값)
교급 중	6.1	31.7	18.3	34.1	9.8	
고	7.1	28.6	10.0	37.1	17.1	
성별 남자	8.3	25.7	11.0	39.4	15.6	10.51*
여자	4.3	40.4	23.4	25.5	6.4	
부의 초졸	9.1	45.5	4.5	27.3	13.6	21.56*
학력 중졸	2.9	26.5	26.5	26.5	17.6	
고졸	6.0	32.8	16.4	37.3	7.5	
대졸	25.0	8.3	0.0	58.3	8.3	
모의 전일제 직장	6.0	32.1	19.0	33.3	9.5	16.39*
취업 시간제 직장	5.0	30.0	10.0	55.0	0.0	
전업 주부	13.8	24.1	6.9	27.6	27.6	
계	6.6	30.3	14.5	35.5	13.2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다.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가 48.7%, 비관적 태도가 37.9%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64.7%, 고교생이 66.5%가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하여 평균적 청소년보다 다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55.0%가 낙관적 태도를 보인데 비하여 여자는

31.9%가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낙관적인 경향을 보여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부의 학력별로는 대졸의 경우가 낙관적 경향을 나타내었고, 모의 취업 여부 변인에서는 전업 주부나 시간제 직장의 모를 가진 청소년이 낙관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낙관적 경향을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사회의식

청소년의 사회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문항은 ‘법의식’을 알기 위해 “우리 사회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기회 균등 의식’을 알기 위해 “우리 사회는 빈부, 남녀, 계층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다”, ‘연고 주의에 대한 의식’을 알기 위해 “성공하는 데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중요하다”, ‘세대차에 대한 의식’을 알기 위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적 미래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해 “우리 나라는 5년 후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이다.

사회적의식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고	8.6 11.8	25.9 29.4	48.1 48.5	11.1 8.8	6.2 1.5	
계	10.1	27.5	48.3	10.1	4.0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법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표 13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7.6%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4.1%로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은 48.3%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39.4%, 고교생이 57.4%가 그렇다

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 청소년보다 법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4 : “우리 사회는 빈부, 남녀, 계층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8.5	20.7	37.8	28.0	4.9	
고	7.4	19.1	39.7	26.5	7.4	
계	8.0	20.0	38.7	27.3	6.0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 사회인가를 물어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빈부, 남녀, 계층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다”라는 문항을 주었고, 이에 대한 응답이 표 14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8.0%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3.3%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28.3%, 고교생이 12.0%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중학생은 비슷하고, 고교생은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성적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기회 균등에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변인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5 : “성공하는 데에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중요하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14.6	22.0	37.8	12.2	13.4	10.55*
고	4.5	16.4	32.8	29.9	16.4	
성적 상	14.5	20.0	27.3	20.0	18.2	16.24*
중	13.7	5.9	41.2	27.5	11.8	
하	2.1	29.2	39.6	16.7	12.5	
부의 초졸	4.8	23.8	47.6	14.3	9.5	24.45*
학력 중졸	8.8	8.8	41.2	29.4	11.8	
고졸	9.0	22.4	32.8	22.4	13.4	
대졸	41.7	8.3	8.3	8.3	33.3	
계	10.1	19.5	35.6	20.1	14.8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에게 연고주의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공하는 데에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이 중요하다”라는 문항을 주었고, 이에 대한 응답이 표 15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9.6%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4.9%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6.6%, 고교생이 2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학생이 더 연고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 25.7%, 고교생이 33.1%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성적별로는 상, 중, 하가 각각 34.5%, 19.6%, 31.3%로 응답하여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이 연고주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연고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별로 보면 대졸인 경우 연고주의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6 :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14.8	28.4	42.0	9.9	4.9	
고	19.1	35.3	38.2	7.4	0.0	
성적 상	23.6	32.7	29.1	7.3	7.3	16.74*
중	13.7	27.5	43.1	15.7	0.0	
하	12.5	33.3	50.0	4.2	0.0	
계	16.8	31.5	40.3	8.7	2.7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에게 세대차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주었고, 이에 대한 응답이 표 16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8.3%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4%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52.9%, 고교생이 55.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적별로는 상, 중, 하가 각각 56.3%, 41.2%, 45.8%로 응답하여 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렇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여 의식의 차이를 보였으나 접경 도

서 지역 청소년에게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 : 사회적 미래

단위 : 백분율 (%)

변 인	크게 후퇴	약간 후퇴	현상 유지	약간 발전	크게 발전	(T/F값)
교급 중	9.9	22.2	24.7	32.1	11.1	
고	8.8	19.1	20.6	38.2	13.2	
계	9.4	20.8	22.8	34.9	12.1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미래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가 표 17에 나타나 있다.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가 47.0%, 비관적 태도가 30.2%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49.1%, 고교생이 46.6%가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낙관적 경향을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문화 의식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문항은 ‘성인문화 모방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의 청소년 문화는 성인 문화를 모방한 것이 많다”, ‘청소년의 서구문화 지향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고유 문화보다 서구 문화가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다”, ‘전통 문화 계승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전통 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문화적 미래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나라는 5년 후쯤 문화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이다.

문화 의식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8 : “우리의 청소년 문화는 성인문화를 모방한 것이 많다”

단위 : 백분율 (%)

변 인	크게 후퇴	약간 후퇴	현상 유지	약간 발전	크게 발전	(T/F값)
교급 중	22.2	34.6	30.9	6.2	6.2	
고	14.5	42.0	36.2	5.8	1.4	
계	18.7	38.0	33.3	6.0	4.0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에게 청소년문화가 얼마나 성인문화를 모방하는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의 청소년문화는 성인문화를 모방한 것이 많다”라는 문항을 주었고, 이에 대한 응답이 표 18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6.7%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0.0%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51.2%, 고교생이 64.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적별로는 상, 중, 하가 각각 56.3%, 41.2%, 45.8%로 응답하여 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그렇다에 더 많은 응답을 하여 의식의 차이를 보였으나 접경 도서 지역 청소년에게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9 : “고유문화보다 서구문화가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다”

단위 :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8.6	24.7	43.2	17.3	6.2	
고	11.9	23.9	43.3	14.9	6.0	
계	10.1	24.3	43.2	16.2	6.1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에게 고유 문화와 서구 문화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고유문화보다 서구문화가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다”라는 문항을 주었고, 이에 대한 응답이 표 19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4.4%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2.3%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42.5, 고교생이 34.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서구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0 : “우리 나라는 전통문화를 잘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단위: 백분율(%)

변 인	매 우 그렇다	그 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T/F값)
교급 중 고	8.5 14.7	18.3 13.2	34.1 38.2	32.9 25.0	6.1 8.8	
성별 남자	13.8	17.4	39.4	24.8	4.6	10.30*
여자	6.5	15.2	41.3	21.7	15.2	
계	11.3	16.0	36.0	29.3	7.3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에게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통문화를 잘 계승·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문항을 주었고, 이에 대한 응답이 표 20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7.3%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6.6%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20.7%, 고교생이 9.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1.2%로 여자의 21.7%보다 그렇다에 높게 반응하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전통 문화가 잘 계승되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그외에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저소득층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1.: 문화적 미래

단위: 백분율(%)

변 인	크게 후퇴	약간 후퇴	현상 유지	약간 발전	크게 발전	(T/F값)
교급 중 고	10.0 7.1	16.3 20.0	20.0 14.3	38.8 38.6	15.0 20.0	
성적 상	13.8	8.6	19.0	48.3	10.3	16.78*
중	4.0	18.0	12.0	44.0	22.0	
하	6.4	25.5	21.3	23.4	23.4	
계	8.7	18.0	17.3	38.7	17.3	(100.0)

* p < .05 ** p < .01 N=152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미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가 표 21에 나타나 있다.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가 56.0%, 비관적 태도가 26.7%로 나타났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52.6%, 고교생이 53.1%가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적별로는 상, 중, 하가 각각 58.6%, 66.0%, 46.8%가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문용린 등[1996]의 연구에서도 중간 성적의 학생이 가장 낙관적 태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상위, 하위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낙관적 태도를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접경 도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문화의식을 조사한 결과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의식에서 보면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은 정치적 효능감이나 정치적 참여의식이 높고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적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 평균적 청소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의식이 낮고,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덜 낙관적이다. 상식적으로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평균 청소년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치의식이라는 것이 시대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고 할 때 1995년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을 때 조사된 문용린 등[1996]의 연구조사 시기와 정치적 불신감이 증폭한 최근의 조사 시기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의 정치적 불신감은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의식에서 보면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은 노조활동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고, 기업간 자유경쟁에 대해서도 매우 허용적이다. 또한 빈부격차를 많이 느끼고 있고, 개인주의적 소비의식과 감각주의적 소비의식, 국산품 애용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기업간의 자유 경쟁에 대한 허용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고,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도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적 소비의식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감각주의적 소비의식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

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도서지역의 경제적 발전의 한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로 도시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감각주의적 소비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대중매체와 교통의 발달, 그리고 최근 백령도 관광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된다.

셋째, 사회의식에서 보면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은 부정적 범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평등의식도 낮게 나타났다. 연고주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많았고, 기성세대에 대한 관용의 정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미래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나라 평균 청소년의 의식과 비교해 보면 범의식은 보다 긍정적이며, 평등의식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평균 청소년보다 건전한 사회 의식을 가지고 있다.

넷째, 문화의식에서 보면 접경 도서지역 청소년은 청소년문화가 성인문화를 모방한다는 생각이 많으며, 청소년 문화의 서구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적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나라 평균 청소년 의식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접경 도서지역이라는 특수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평균 청소년 의식과 이 지역 청소년의 의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의식에서 많은 차이가 기대되었으나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사 시기의 변수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의식에서는 도시적 청소년 문화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접경 도서지역에도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접경 도서지역이라는 환경 때문에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경제적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약화시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식은 우리나라 평균 청소년에 비하여 건전하며 문화의식에 있어서는 평균적 청소년과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 고 문 헌

- 도종수 등(199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문용린 등(1996), 「신세대의 이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 송광성 등(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오백진 편(1979), 「백령도」, 서울:샘터사.
- 옹진군지 편찬위원회(1990), 「옹진군지」, 옹진군.
- 임천순·정태화·이광호(1990), 「청소년 경제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2), 「청소년의 생활의식과 대화실태」, 체육청소년부.
- 최운식·백원배(1997), 「백령도」, 서울:집문당.
- 최운식(1996), “백령도 지역의 심청전설 연구”, 한국민속학보 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 한국갤럽조사연구소.